

벤투호 아자디 첫 승 불발... 뒷심 부족

"이번 우승 후보는 우리카드"

카타르WC 예선 이란과 1-1
한국, 아자디서 12년만 득점
손흥민 선제골 지키지 못해
2승 2무로 A조 2위는 유지



12일 (한국시간) 열린 카타르WC 최종예선 한국과 이란과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이날 손흥민은 아자디 원정에서 12년 만에 골을 넣었지만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부는 1-1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연합뉴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가 이란 원정에서 손흥민(토트넘)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아쉽게 비겼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란과 치른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4차전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

후반 3분 손흥민이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후반 31분 알리레자 자한바흐시에게 동점골을 내줘 적진에서 승점 1씩 나눠 가진 데 만족해야 했다.

지난 7일 시리아와 3차전 홈 경기(2-1 승) 결승골에 이어 2경기 연속 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2009년 치른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1-1 무)의 박지성 이후 12년 만에 이란 원정에서 골을 넣은 한국 선수가 됐지만, 승리의 주인공까지 되지는 못했다.

한국은 2승 2무(승점 8)로 이란(3승 1무·승점 10)에 이은 조 2위를

유지했다.

벤투 감독은 황의조를 최전방에 세우고 시리아전 결승골의 주인공 손흥민을 이재성(마인츠),황인범(카잔), 황희찬과 2선에 배치했다. 정우영(알 사드)이 중원을 책임지고 좌우 풀백 홍철(울산)과 이용(전북), 중앙수비수 김민재(페네르바체)와 김영권(감바 오사카)이 수비라인을 구축했다. 골문은 김승규(가시와 레

이슬)가 지켰다.

한국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손흥민이 해결사로 나섰다.

후반 3분 후반에서 이재성이 찢려 준 공을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몰고 가다 상대 골키퍼가 달려 나오는 것을 보고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오른쪽에 꽂아 넣었다.

이후 한국은 만회골을 노린 이란의

거센 공격에 시달렸다. 결국 후반 31분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골 지역 오른쪽에서 아즈문이 올린 크로스를 자한바흐시가 골문 정면에서 머리로 받아 넣어 균형을 맞췄다.

한국은 황의조 대신 투입된 나상호(서울)가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아크에서 날린 결정적인 오른발 슈팅이 몸을 날린 골키퍼 선방에 막혀 결국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연합뉴스

제주 남원중 이동원, 금1·은1 쾌거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막으른다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남원중학교 3학년 이동원(사진)이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중학부 높이뛰기 금메달과 멀리뛰기 은메달을 획득했다. 처음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얻은 값진 메달이다.



하고 끈기 있게 생활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성장을 위해 더욱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체육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5~7일 전북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목별 분산 및 비대면 대회로 개최됐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 21개 종목 211명 출전 베드민턴·수영 등 메달 기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구미시를 주 개최지로 경상북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에 21개 종목 선수 211명과 임원 및 보호자 201명 등 총 411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2020 도쿄패럴림픽대회 메달리스트 이동섭을 포함 대회에 참가했던 신경환, 강정금(이상 베드민턴), 김동현, 김호용, 황우성(이상 휠체어농구) 등의 선전이 기대된다.

수영, 역도, 육상 등 기록종목, 배드민턴 등 개인단체종목과 구기종목인 휠체어농구는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

고 있어 좋은 성적을 얻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2022년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하며 3연속 데플림픽(농아인올림픽) 출전을 하게 된 오원종과 첫 데플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이로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낸 고재일의 활약도 예상된다.

박종성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한 훈련장소 등 열악한 환경에도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를 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개·폐회식과 시범종목 경기를 취소해 축소 개최된다.

도장애인체육회도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선수단 결단식 대신 홈페이지를 통해 격려 영상 메시지를 게재한다. 오은지기자

남자 프로배구 미디어 데이 선수 7명 중 5명·전문가 전망

남자 프로배구 7개 구단 대표 선수들이 공룡으로 꼽은 우승 후보는 우리카드였다.

남자부 7개 구단 감독과 대표 선수들은 13일 열린 미디어 데이에 참석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새 시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새 시즌에 대한 준비 상황과 각오에 대한 모범적인 발언이 끝난 뒤 이번 시즌 우승 후보를 문자결이 달라졌다.

각 팀을 대표해 참석한 선수들은 우승 후보를 묻는 말에 평평한 자존심 대결을 벌였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1~3위 팀인 대한항공(임동혁)과 우리카드(나경복), KB손해보험(김정호)은 각각 자신의 팀들을 지목했다. 나머지 4개 팀은 우리카드에 불표를 던졌다. 조재성(OK금융그룹), 최민호(현대캐피탈),

서재덕(한국전력), 황승빈(삼성화재)이 작대기로 우리카드를 가리켰다.

스스로 선정한 나경복까지 포함하면 7명 중 5명이 우리카드의 우승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전망했다.

우리카드의 외국인 선수 알렉스 페헤이라는 "지난 시즌 챔피언결전전에서 아쉽게 졌는데, 상대가 잘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 측면도 있다. 그래서 뽑아준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카드는 지난 시즌 챔피언결전에서 대한항공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주로 알렉스가 4차전에서 북풍으로 경기에서 빠지며 창단 첫 우승 세리머니 기회를 놓쳤다.

대한항공에 막혀 아쉽게 2위에 그친 우리카드는 올 시즌만큼은 반드시 우승의 한을 풀겠다는 각오다.

대한항공의 주포 정지석이 구실에 휘말리며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데 반해 우리카드는 별다른 전력 누수가 없어 많은 전문가가 우리카드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전망한다. 연합뉴스



"챔피언십으로 간다!" 13일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개러티드레이프필드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5전 3승제) 4차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휴스턴의 경기에서 휴스턴의 라인 스타벅이 호투하고 있다. 이날 휴스턴은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10-1로 완파하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생로병사의 비밀(재) 11:50 안녕 우리말 2021 11:55 송대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2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국가대표 와이프(재) 10:00 인강극장 스페셜 11:00 빨강 구두 스페셜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가진 해피플러스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9:50 좋은 아침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 맛에 산다 11:15 꾸러기 식사교실(재) 11:45 똑딱꾸조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7:30 뽀뽀뽀 뽀로로 8:00 땀땀 땀 9:00 유치원 12:10 EBS 무보 13:00 알인해피오 생방송 오후1시 14:10 명의 15:25 클래식 e 16:15 한글용사 아이야 16:30 땀땀 땀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19:35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크콘서트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13:50 한국의 인류유산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팡팡 다이노 14:45 반박반박 달남이 15:00 미법소녀 디디 2 15:15 출동! 유혹구조대 2 15:30 빈과 후 초능력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50 박원숙의 같이살아요(3)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키오까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누가 잘하나 17:00 나잇는 나잇 나무늘보 놀 2 17:15 콘서트 탑 17: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검은태양(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다류에세이 그사람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20 JIBS 뉴스 12:35 CBS 낮종합뉴스 14:00 시사브리핑 16:00 시사브리핑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9:00 그대장에게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천왕이 있는 숲길 13:30 생방송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건건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민본부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영민의 가스펠 어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밤상 20:30 국가대표 와이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데뷔의 순간 시대를 바꾼 아티스트 4부작 22:55 더 라이브 23:3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팡팡 구두 20:30 UHD 환경스페셜 21:30 달리의 감자탕 22:40 오늘부터 무해하게 23:40 스포츠 하이리이트	18:05 생방송 오늘 저녁 19:05 생방송 연금포럼 720+ 19:10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극한데뷔 아성들 23:00 명쾌한 주	18:50 포커스 인 제주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워킹스타 필요해 22:30 당신이 후회는 사이 2	7:00 KCTV 뉴스 8:00 디플로마트 토크 9:30 할말과, 이어도사나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KCTA 커머스 13:10 마스트 및 혼자리도 편잡이 14:00 디플로마트 토크 15:00 KCTV 뉴스 15:20 세프의 필드밥상 16:10 마스트 및 혼자리도 편잡이 17:00 KCTV 뉴스 18:30 KCTV스페셜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14일

김종상 지단(해)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문서 계약이 끝나니 중요사안은 다음을 기약하라. 48년 관계구설의 시끄러움이 들린다. 매사에 신중하라. 60년 돈 문제로 처가나 시댁과 다툼이나 원성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72년 지식 문제로 고민.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라. 84년 이성관계에서 의견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양보.

37년 마음이 평화로운 자는 인생이 아름답다. 49년 건강이 최우선 폐야 함을 잊지 마라. 61년 분실, 도난수가 있으니 무단속 주의. 부부금실 적신호. 73년 업무의 성과가 미약하고 능력은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몰라준다. 85년 친구나 동료와 의견대립이 있으니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라.

38년 자식의 일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으로 건강을 해하지 마라. 50년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되니 언행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62년 기계 고장이나 업무의 하자로 지연이 된다. 74년 집안에 걱정이나 근심이 오고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안부전화. 86년 무언가 새롭게 바뀌려고 마음이 동요.

39년 산 정상을 밟아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것이다. 51년 내일을 기약하는 지혜가 필요. 무리수 금지. 63년 활동력이 왕성해지고 분주하다. 도움을 요청하라. 75년 군중심리의 약성향을 받을 수 있으니 냉철하고 철저한 본인관리가 요구. 87년 이디러가 떠나고 싶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40년 강한 추진력이 결과를 얻는다. 밀어붙이는 파워의 승전보가 있다. 52년 매출이 증대되고 거래가 활발하다. 64년 물질적·정신적문제도 같음이 생긴다. 직업으로 갈등은 불리. 76년 친정의 소식을 접하거나 여행, 외출을 한다. 88년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41년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내가 아플수 있다. 53년 지식의 문제로 고민과 걱정을 한다. 과도한 충고는 자제. 65년 화근이 말에서 시작되니 언행에 신중하라. 작은 실수가 큰 후회를 만든다. 77년 이동, 변동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실에 충실하고 내일을 기약하라. 89년 충고는 사랑에서 시작됨을 알라.

42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보증을 보류. 54년 나를 찾는 이가 있다는 자제가 행복이 될 수 있으니 초청 모임에 적극 응하라. 66년 남자는 만용은 오히려 독이 되니 부족함을 한탄하지 마라. 78년 주변의 갑연이설에 신경을 쓰거나 조심해야 한다. 90년 화를 다스리는 지혜로 먼저 마음을 비우라.

43년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나의 행운이다. 55년 동업이나 투자 문제로 주변 좋은 친구와 의견을 나눠 볼 것. 67년 평생교육이나 평생학문에 관심이 이익이 된다. 79년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 결과를 가져 오는 지혜가 필요. 91년 남의 일에 간섭 시 구설 또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44년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를 배려하며 경청해줄 것. 56년 부인의 배려가 있는 가 하면 불화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68년 주어진 일은 마무리를 잘해야 이익이 있다. 80년 카운슬러·간호·한방분야 종사자는 상사의 칭찬 또는 인정받는다. 92년 돈 문제로 마음에 여유가 없다.

45년 약속 지체 시 신뢰가 떨어진다. 57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직접 분업이 느껴야 한다. 69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법. 변동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할 것 같다. 81년 정보활용이 절실하다. 평생교육 현장을 통해 지식 습득이 필요. 93년 마음이 편안하고 아쉬운하다. 자신을 가꾸는 변화도 중요.

46년 애착사람에 의해 피해가 오니 신경을 쓰고 주의하라. 59년 물류업이나 유통업은 분주하고 할 일이 늘어난다. 70년 자격증을 한 개정도 취득하는 해로 정해본다. 82년 능률적인 학습전략이 자격증이 나 시험을 유리하게 한다. 94년 친구나 동료에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긴다.

47년 지갑 소지품을 분실하니 주의. 내부 소행이 될 수 있다. 59년 자녀에 대한 경사나 막혔던 일이 해소된다. 취업자는 직장소식도 온다. 71년 분위기에 휩쓸리면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을 수가 있다. 83년 행복에 시간이 되도록 나만의 설계 계획이 필요하다. 95년 모임에 참여함도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